

陶谷 李宜顯의 「遊金剛山記」에 관한 一考

윤 지 훈 *

<目次>

- | | |
|-------------------|--------------------|
| I. 序論 | III. 敘述 方式과 內容의 特徵 |
| II. 遊覽의 經緯와 構成 體裁 | IV. 結論 |

<국문 초록>

본고는 이의현의 금강산 유기인 「유금강산기」를 분석해 본 것이다. 분석 결과, 이의현의 유금강산기 는 그가 1709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12일간 금강산을 두루 유람하고 돌아와 쓴 기록으로, 전통적 산수유기의 典型을 준수 하면서도 조선 후기 산수유기의 特徵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서술 방식은 여행 경로를 따라가며 금강산의 실경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있으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산수에 대한 품평도 일부 시도하고 있다. 또한 그의 「유금강산기」는 다른 금강산 유기에 비해 문물과 지리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의현의 기록과 수집·정리의 습성이 반영되고, 문장은 세교에 효용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道를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의 문학론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요컨대, 이의현의 「유금강산기」는 산수 자연의 사실적 묘사와 다양한 인문학적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주제어】 이의현, 유금강산기, 실경 묘사, 산수 품평, 문물, 지리, 記錄癖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singlesw@kice.re.kr

I. 序論

陶谷 李宜顯(1669~1745)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을 살았던 조선의 문인·학자로, 1694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이래 都承旨·禮曹參判을 거쳐 禮曹判書·大提學·右議政·領議政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그는 農巖 金昌協의 제자로 스승의 古文論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되어 왔으며, 1720년과 1732년에 각각 冬至正使와 謝恩正使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그간의 여정과 감상을 기록한 2편의 연행록을 남겨 학계에 주목을 받았다. 그간 이의현에 관한 연구가 대체로 그의 문장론과 고문론,¹⁾ 그리고 「庚子燕行雜識」와 같은 연행록²⁾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학계의 관심을 대변한다. 간혹 그의 한시 작품과 碑誌文, 「陶峽叢說」이나 「雲陽漫錄」과 같은 필기류 저작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 보고되기도 하였으나,³⁾ 그가 남긴 다양한

-
- 1) 정옥자(1984), 「陶谷 李宜顯과 그의 文學觀」, 『韓國史論』11, 서울대 국사학과; 이연희(1989), 「陶谷 李宜顯 研究」, 숙명여대 석사논문; 기정순(1994),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기정순(1999),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小考」, 『한문학논집』17, 근역한문학회; 박은정(1998),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정순희(2001), 「조선중기 古文論 해석의 문제점-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47, 한국언어문학회; 정순희(2002),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과 文學」, 전북대 박사논문; 장유승(2009), 「陶谷 李宜顯의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작가연구』13, 한국한시학회; 민복기(2009), 「陶谷 李宜顯 散文批評의 淵源에 대한 研究」, 부산대 박사논문.
 - 2) 김영진(1999),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김미순(2012), 「<庚子燕行雜識>를 통해 본 李宜顯의 淸 文物 認識」, 『역사교육논집』48, 역사교육학회.
 - 3) 김우동(1997), 「陶谷 李宜顯의 文學觀과 詩世界」, 경북대 석사논문; 정순희(2004), 「古文論과 碑誌類의 상관성-陶谷 李宜顯의 碑誌類를 중심으로-」, 『語文研究』46, 어문연구학회; 사경화(2011), 「도곡 이의현의 간염 추구와 문학적 구현: 碑誌類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논문; 박은정(2012),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곡 이의현-記錄癖과 기록 정신을 중심으로-」, 『온지논총』30, 온지학회.

문학 작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영역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의현의 문학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기 위해, 그의 금강산 遊記인 「遊金剛山記」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가 그가 남긴 다양한 문학 작품 중에서 유독 산수유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선 후기 산수유기가 글쓰기와 향유 방식에 있어 전대와 다른 변화상을 보이며 발전하였고, 그 변화의 중심에 이의현의 스승인 김창협이 있었으므로, 다른 장르에 비해 이의현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산수유기는 그가 여행록이나 필기류 저작에서 보여준 기록벽과 기록 정신을⁴⁾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의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주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遊金剛山記」의 체재와 유람의 경위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서술 방식의 특징과 그 성과를 조선 후기 산수유기의 변화상과 연결 지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다양한 이의현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遊覽의 經緯와 構成 體裁

이의현의 금강산 유람은 1709년 8월경에 庶從叔인 許統, 생질인 權瑩과 함께 유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운 이래,⁵⁾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2일 동안 이루어졌다. 그의 금강산 유람을 거리로 환산하면 육로가 540리, 산행이 110리, 해로가 210리로 총 860리이다.⁶⁾ 그가 1709년에

-
- 4) 박은정(2012),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곡 이의현-記錄癖과 기록 정신을 중심으로-」, 『온지논총』30, 온지학회 참조.
- 5)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時庶從叔許統甥姪權瑩隨余來留. 余謂二君曰: ‘楓岳是吾夢想處, 而今適駐近, 實天借其便, 而若不一往, 豈非平生大恨. 況今楓葉方酣, 天氣正佳, 入山遊賞, 時哉不可失. 君輩能從我乎?’ 二君躍然曰: ‘此吾願也, 敢不樂從.’ 遂約於菊秋初吉登程, 是日戊辰.”
- 6)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是行也凡旬有二日而後返, 陸行五百四

금강산을 유람하게 된 것은 “성품이 게으르고 튼튼한 다리도 없어 성 안의 산천을 한 곳도 보지 못했다. 다만 금강산은 나라에서 이름난 산으로 선배들이 유람하였고, 책에 적힌 것도 많아서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잊을 수가 없었다. 기축년(1709년) 가을에 외직으로 나와 伊川府를 맡았는데, 이천부에서 금강산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이틀이면 충분히 이를 수 있었다.”⁷⁾는 언급처럼 1709년 가을 伊川府使로 부임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시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총 115수의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⁸⁾ 현재 이들은 『陶谷集』卷1에 일부 수록되어 있을 뿐 「유금강산기」에는 한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⁹⁾

이의현의 「유금강산기」를 토대로 그의 금강산 유람 경로를 날짜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 시	여 정
9월 1일	伊川府-月川峴-玉谷峴-玉洞驛-平康-玉洞川-憩峴-甲川
9월 2일	力彌峴-月籠川-赤霏院-金化-餘坡峴-踏遷-塔里村-網城峴)-昌道峴-赤岸峴-梧木川-岐城村
9월 3일	相壁峴-梁甫川-觀音遷-僧坐峴-通溝津-通溝村-藍橋川-斷髮川-都坡峴-都坡川-長坪村-楸亭川-斷髮嶺-淮陽-新院村-新院川-鐵耳峴-楸池川-長安寺
9월 4일	長安寺(山映樓)-極樂庵-地藏庵-明鏡臺-極樂門-靈源菴-百塔洞(鳴潭-石穴)-雲堦庵-三佛巖-白華庵-表訓寺-天逸臺-正陽寺-歇惺樓
9월 5일	歇惺樓-表訓寺-萬瀑洞(靑龍潭-拭巾巖-碧霞潭-凝碧潭-眞珠潭

十里, 山行一百十里, 海行二百十里, 揔之八百六十里也.”

- 7)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余性懶漫, 又乏濟勝之具, 凡於域內山川, 一未曾寄目. 惟以楓岳, 是國中名山, 先輩游覽, 散之篇章者多矣, 常興懷不能忘. 己丑秋, 出知伊川府, 府距山下不遠, 信宿可至.”
- 8)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得詩一百十五首”
- 9) 『陶谷集』卷1에 수록되어 있는 시는 庚寅年(1710) 조에 「山映樓」, 「釋迦峰」, 「地藏峰」, 「地藏菴」, 「望見內山面目」, 「白華菴」, 「天逸臺」, 「移城」, 「觀僧徒馳瀑」, 「觀日出」, 「通川道中」, 「自朝珍幾十餘里連傍大海而行途中記興」, 「四仙峰」, 「龍貢寺」, 「楸池嶺」, 「和川」, 「淮陽途中」 등 총 17편이다.

	-龜潭-移城-火龍潭-船潭)-摩訶衍-彌勒臺-光明臺-李許臺-玉流洞-內水帖-隱仙臺-大寂峴-瓦窰峴-楡帖洞-楡帖寺
9월 6일	楡帖寺(山映樓)-成佛帖-佛頂臺-朴達串-風穴-五松臺-石門洞-松林窟-松林菴-圓通寺-曉陽串-瀑布菴-鉢淵寺-鉢淵
9월 7일	海山亭-三日浦-埋香碑-四仙亭-獅子巖-養珍驛-城直-通川境-瓮遷-朝珍驛
9월 8일	朝珍驛-叢石亭-龍貢寺
9월 9일	龍貢寺-楸池嶺-淮陽-和川-三小峴-栢田峴
9월 10일	西津江-德津堂-天寶峴-南嵐谷村-西嵐谷村家
9월 11일	薑項峴-平康-三峴-三川-注波村-憩峴-玉洞川-玉洞驛
9월 12일	玉谷峴-月川峴-伊川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의현은 1709년 9월 1일에 任所인 伊川府를 출발하여 平康과 金化지역을 거쳐 금강산에 들어가 내금강과 외금강, 해금강의 가을철 정경을 마음껏 만끽하고 돌아왔다. 역대로 금강산을 유람한 수많은 문인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외금강만을 보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내금강만을 유람한 경우도 있으며, 외금강과 내금강을 두루 보았더라도 해금강에서의 일출은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는 날씨도 따뜻했거니와 안개도 잘 끼지 않아 毗盧峯과 九龍淵을 제외한 금강산의 거의 모든 승경을 빠짐없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번 금강산 유람이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금강산의 전모를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자긍심을 보이며, 유람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준 하늘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¹⁰⁾ 그가 「유금강산기」의 말미에 비로봉과 구룡연을 보지 못한 것을 두고 “茲遊之一大缺事”라고 표

10)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古今遊此山者多矣, 能得其妙者蓋尠. (中略) 其一生經營而卒未遂者, 固不論, 雖其幸而得償夙願者, 或自外山入而觀止於楡帖, 或自內山入而觀止於正陽表訓之間, 或周歷內外山而於東海則迹未到焉, 或嵐霧以障之, 或風雨以阻之, 或因疾病事故, 中途而還, 或當盛暑而揮汗奔馳於深嵌茂草之中, 或值祁寒而忍凍登陟於巖楓盡落之後, 顧安有一分興趣哉. 今余則正當九秋佳節, 楓葉紅酣, 爛映一山, 晃然如萬花川谷. 入山之後, 天日一向和暖, 無氛霧之翳, 得以恣意觀覽於仙真窟宅, 山海奇勝, 領略殆盡, 天之餉我, 亦不可謂不厚矣.”

현하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긴 했지만,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의 경감과 선배들의 산수유기 속에 이미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아 자위하는 모습¹¹⁾ 등은 이번 금강산 유람에 대한 그의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금강산기」의 구성 체재를 살펴보면, 우선 작품 전체가 형식상 별도의 구분 없이 일기체 형식을 빌려 날짜별로 그날의 여정과 감상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²⁾ 굳이 서술 내용을 기준으로 작품을 구분하자면, 유람의 경위를 밝힌 서두 부분과 유람의 여정을 날짜별로 기록한 부분, 그리고 유람을 마친 후 작자의 소회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산수유기란 장르가 일반적으로 ‘유람동기-여정-총평’ 순의 구성 체재를 보이며 情景議의 안배를 통한 예술미의 추구하는 바,¹³⁾ 일단 「유금강산기」는 산수유기의 보편적 특성을 충실히 따른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산수유기가 17세기 말 김창협과 金昌翁을 거치면서 일기체 형식으로 여행 경로를 따라가며 서술하던 기존의 관행과 격식에서 벗어나 내용과 주제별로 節目化되고, 편폭이

11)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至若九龍淵之未賞, 毗盧峰之不登, 必有以爲茲遊之一大缺事. 而余意有不然者, 茲二勝, 雖曰奇特, 其危險亦最甚, 行險徼幸, 君子不由也. 故栗谷先生亦不登賞, 警懼之意, 至著於詩文, 余何敢率意妄動, 以背前脩之明訓而犯先聖馮河之戒, 蹈韓子鑄銘之悔哉. 人之登毗盧者, 皆眩轉恟愁, 茫如墜霧, 脚下亦不能辨, 徒憑僧輩之指示, 認爲遠眺, 輒以誇壯於人曰: 吾登毗盧頂, 見某地某山矣, 又豈不爲矮人之觀場而資識者之一哂哉. 且雖得賞二勝, 而舉不免上數者之魔戲, 則固不能以彼之賞而償此之恨矣. 以先輩名公遊記觀之, 其愜意稱心, 無所牽礙, 如余此行者, 蓋無幾焉, 則烏可無文字之編錄, 以志其奇幸哉.”

12) 날짜별 기록 방식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戊辰. 早起促食, 以單騎, 與二君並轡而行. (中略) 踰憇峴, 昔弓齋游獵時憇息處云. 涉甲川, 弓齋聞變, 逃至川上, 棄甲而走故名云. 向晚, 驟雨從東來, 洒面即止. 夕宿邑底村. 己巳. 蓐食而發, 踰力彌峴, 涉月籠川, 到赤霏院. 上有石屏, 下有長灘, 灘聲瑟瑟, 如鳴玦環. (中略) 日已向暮, 遂跋馬疾驅, 暈黑, 始投歧城村宿.”

13) 고연희(2001),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참조.

짧아지는 小型化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작자의 체험과 의론을 자유롭게 써내려가는 등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대두된 것을 감안하면¹⁴⁾, 그의 작품은 형식적으로 조선 후기 새롭게 나타난 글쓰기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산수유기의 典型을 준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유기는 형식과 달리 내용적으로는 산수를 단순히 애호하는 수준을 넘어 탐닉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산수 경치의 사실적인 묘사에 치력하며 산수로부터 興과 快의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조선 후기 당대의 경향¹⁵⁾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것은 다음 장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Ⅲ. 敘述 方式과 內容의 特徵

1. 實景의 描寫와 山水 品評

이의현의 「유금강산기」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작품 전체가 여행 경로를 따라 작가의 시선에 비친 금강산의 실경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수 경치의 사실적 묘사를 위주로 산수유기를 서술하려는 경향은 산수를 심성도야의 장으로 인식하고 경치의 묘사보다는 작가의 심정 술회를 중시하였던 이전 시기의 서술 방식과는 다른 조선 후기 산수유기만의 특징인데, 「유금강산기」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일찍 일어나 산영루에 올랐다. 누대는 모두 10칸으로 사면이 구불구불한 난간으로 둘러있었다. 앞에는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고 난간의 머리, 누대의 남

14) 정우봉(2012), 「조선후기 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 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 연구』49, 한국한문학회 참조.

15) 정민(2001),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18세기연구』4, 한국18세기학회; 안득용(2005), 「17세기 후반 ~ 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참조.

쪽에는 활꼴의 돌다리가 있으니 바로 飛虹橋이다. 길이는 60척이며 높이는 그 반이다. 그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흘러가면서 돌에 부딪쳐 끌고 내려가는데 소리가 숲에 진동하였다. 바라다 보이는 곳에 층층의 봉우리들이 높이 솟아 나열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이 서서 버티고 있는 것이 釋迦峰이다. 누대의 북쪽에 병풍이 둘러쳐진 듯, 새의 날개가 펼쳐진 듯한 것은 石鷹峰이다. 석가봉의 뒤에 둥글면서 곧고 곧으면서 묘하여 사람이 모자를 쓴 것 같은 것은 地藏峰이다. 석가봉의 아래에 깎아지른 세 줄기로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것은 觀音峰이다. 지장봉 옆에 흑 입을 벌려 ‘아’ 하는 듯, 흑 화살을 피는 기구처럼 갈래진 것은 長慶峰이다.¹⁶⁾

위 글은 이의현이 9월 4일 長安寺의 山映樓에 올라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을 묘사한 부분으로, 작가의 주관적인 견해는 배제하고 실경만이 담백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는 「유금강산기」란 작품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창협이 장안사의 산영루를 “절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으나, 동북쪽에 우뚝 솟은 몇몇 봉우리의 모습만은 사람을 압도하였다. 그 이름을 물었더니, 地藏峯, 觀音峯, 普賢峯이라 하였다.”¹⁷⁾라고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가 실경 묘사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16)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早起上山映樓. 樓凡十間, 四面環以曲欄. 前有大巖屹立, 欄頭樓南, 有石橋窿然, 卽飛虹橋也. 長六十尺, 高可半之, 清泉流於其下, 觸石奔掣, 聲振林樾. 望中層巘疊嶂, 羅列聳插, 其最高而束立撐出者, 爲釋迦峰. 在樓之北, 如屏障之繞, 如鳥翼之張者, 爲石鷹峰. 在釋迦之後, 圓直而端妙, 如人着帽者, 爲地藏峰. 在釋迦之下, 三朶戍削, 若人立者, 爲觀音峰. 在地藏之傍, 或呀如開唇, 或枝如箭栝者, 爲長慶峰.”

17) 金昌協 『農巖集』卷23, 「東遊記」, “寺據平地, 四圍回合, 無所覩見, 唯東北數峰, 峻拔聳立, 狀欲壓人. 問其名, 地藏觀音普賢也.”

18) 참고로 이의현이 山映樓에 올라 지은 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밤에는 장안사에서 유숙하고, 아침에는 산영루에 올랐네. 못 산에 옥 봉우리 닮아 솟으니, 만 골짜기에 안개가 비로소 걷히네. 마음 상쾌함은 오직 오늘날이니, 큰 소리로 시 읊조림은 늦가을의 흥이라네. 모르지기 날개 단 신선이 되어야 나는 듯이 걸어 단구에 오르겠지.[夜宿長安寺, 朝登山映樓. 千巖玉爭

그의 이러한 실경에 대한 가감 없는 묘사는 正陽寺로 가는 길에 天逸臺에 올라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그는 먼저 “눈앞의 일만 이천 봉을 바라보니, 줄 지어 서서 에워싸며 기이함과 아름다움을 다두고 있었다. 단풍든 나무들이 온 산에 가득한데 석양이 번쩍이며 비추고 있어, 마치 붉은 비단으로 된 步障을 길게 드리우고 둘레를 호위하는 것 같았다.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니 경치가 천태만상이라 붓으로 다 기술할 수가 없었다. 우선 큰 것만 논하겠다.”¹⁹⁾고 전제한 후, 毗盧峯, 衆香城, 白雲臺, 雁門峰, 望高臺, 望高臺, 穴望峰, 香爐峰, 金剛臺, 靑鶴臺, 圓通峰, 白馬峰, 國望峰, 羅漢峰, 頓道峰, 上雲峰, 獅子峰, 五賢峰 등의 모습을 “구름 낀 하늘에 높이 솟아 동북쪽으로 웅장하게 서려 있으면서 삼가고 존엄한 것은 비로봉이다. 이는 실로 내외 금강산의 주봉으로 눈처럼 흰 것이 우뚝 솟아 玉筍을 뽑은 듯하였다.”²⁰⁾와 같이 화폭에 스케치 하듯 묘사하였다.²¹⁾ 그리고 눈에 보이지만 다 기록할 수 없는 봉우리에 대해서는 “대개 그 이름만 거론하자면 普賢峰, 使者峰, 十王峰, 彌勒峰, 天燈峰, 達摩峰, 日出峰, 月出峰, 水精峰, 船巖峰, 迦葉峰, 熊虎峰, 摩訶衍峰, 萬灰峰, 圓寂峰, 僧床峰 등이다.”²²⁾와 같이 가

聳, 萬壑霧初收. 快意惟今日, 高吟倚九秋. 應須仍羽客, 飛步躡丹丘.(李宜顯, 『陶谷集』卷1, 「山映樓」)”

- 19)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前望萬二千峰, 列立圍攢, 爭奇競秀. 楓栝漫山, 夕照閃映, 如以紅錦步障張遮而環衛者然. 前瞻後顧, 景象難侔, 筆不可盡述, 姑就其大者而論之.”
- 20)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其雄盤東北, 高插雲天, 竦處而尊嚴者, 毗盧峰. 此實內外山之主峰也, 雪色嵯峨, 如抽玉筍.”
- 21) 참고로 天逸臺에서 이의현이 지은 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저물녘 높은 대에서 시인의 지팡이 멈추고서, 가슴에 응어리진 목은 때를 깨끗이 씻노라. 동서남북 경계를 멀찍이 바라보고, 일만 이천 봉을 평평하게 내려다보네. 석양과 단풍잎은 붉은 빛 서로 더하고, 맑은 하늘 산기운은 푸른 빛 질구나. 분분히 명리 쫓는 이들에게 말하노니, 그대들이 어찌 이 기이한 자취 밟겠는가.[高臺薄晚住吟筇, 快洗塵間芥滯胸. 迥挹東西南北界, 平臨一萬二千峰. 夕陽楓葉紅相襯, 晴日雲嵐翠正濃. 寄語紛紛名利子, 爾曹寧躡此奇蹤.(李宜顯, 『陶谷集』卷1, 「天逸臺」)”

급적 금강산의 실경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역시 김창협이 “한참 동안 앉았으려니 흰 구름이 깨끗이 걷혀 세상에서 萬二千峯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낱알이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과연 그 독특한 모습과 빼어난 자태는 일일이 다 기술할 수가 없었다.”²³⁾라고 묘사한 것이나, 魚有鳳이 “북쪽으로 수미봉, 영랑봉으로부터 남쪽으로 지장봉, 관음봉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었다.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르는 산세는 매우 가빠르고 험준하여 성체를 펼쳐놓은 듯 창을 모아 놓은 듯 했으며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르는 산세는 비등하게 모여 파도가 일렁이고 구름이 용솟음치는 것 같아,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을 현혹시켰다.”²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경에 대한 충실한 묘사가 「유금강산기」의 특징적 서술 방식임에 분명하다.

한편, 「유금강산기」의 또 다른 특징적 서술 방식을 꼽자면 제한적이긴 하나 산수에 대한 품평을 들 수 있다. 사실 산수 품평은 17세기 말 18세기 초 대두된 산수 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서, 산수를 탐미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던 문인들이 보다 뛰어난 산수미를 찾기 위해 산수를 두루 유람하며 어느 산수의 풍경이 얼마나 승경이며 어떻게 승경이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²⁵⁾ 따라서 이의현의 「유금강산기」에 산수 품평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당시 산수 문학의 흐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유기에 이를 반영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그의 산수 품평을 두고 “제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權燮의 「遊賞品題

22)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槩舉其名, 曰普賢峰也, 使者峰也, 十王峰也, 彌勒峰也, 天燈峰也, 達摩峰也, 日出峰也, 月出峰也, 水精峰也, 船巖峰也, 迦葉峰也, 熊虎峰也, 摩訶衍峰也, 萬灰峰也, 圓寂峰也, 僧床峰也.”

23) 金昌協, 『農巖集』卷23, 「東遊記」, “坐久, 白雲淨盡, 世所稱萬二千峰者, 一一呈露如掌中, 果其殊狀異姿, 不可備述.”

24) 魚有鳳, 『杞園集』卷20, 「遊金剛山記」, “北自須彌永郎, 南至地藏觀音, 一目盡之. 蓋山之自北而東者, 奇峭峻拔, 如列堞如簇劍, 自東而南者, 奔騰蹙沓, 如海盪如雲湧, 殊狀異態, 令人眩惶.”

25) 高연희(2001),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참조.

錄」이나 安錫徹의 「東遊記」와 같이 산수 품평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유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⁶⁾ 그러면 이의현의 「유금강산기」에 나타난 산수 품평의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表訓寺에 들어갔다. 표훈사는 이 산에서 이름난 사찰로 신라의 승려인 표훈이 창건하였다. 장안사, 정양사, 유점사의 여러 절과 더불어 일컬어지는데, 대개 화재를 면치 못한 다른 절들에 비해 이 절은 홀로 온전하였다. 般若, 四聖, 千王 등의 殿은 지극히 정미하고도 아름다웠으며, 海藏殿은 불경의 모든 板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寮舍는 모두 10여 곳이었다. 돌을 쌓아서 무지개다리를 만들고 다리의 머리 부분에 누각을 세웠다. 이 누각도 또한 산영으로 이름 지었는데, 넓고 탁 트인 것으로 치자면 장안사의 산영루만 못했다. 누대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고 들보 위에 이름을 썼다.²⁷⁾

이의현은 위 글에서 표훈사에 있는 여러 건물의 특징과 경관을 차례로 형상화하고, 자신이 견문한 산수 체험을 바탕으로 간단한 산수 품평을 곁들이고 있다. 그가 표훈사에 앞서 장안사를 둘러보고 그곳에 있던 산영루에 올라 주변의 산수 풍광을 경험한 바 있었기에 표훈사의 산영루가 장안사의 것보다 못하다는 품평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유금강산기」에 보이는 그의 품평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다. 위 인용문의 경우도 그러하거나와 대부분의 품평이 “누대는 지극히 높고 트였다. 떼 지어 늘어선 여러 산들이 정면에서 바로 마주하니 음식을 늘어놓은 것처럼 거리낌 없이 모두 보였다. 난간 앞에 모두 모였는데, 눈앞이 상쾌하였다. 天逸臺에서 본 것보다 배

26) 윤지훈(2005), 「삼교 안석경의 금강산 유기」, 『한문학보』12, 우리한문학회; 정우봉(2012), 「조선후기 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 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49, 한국한문학회 참조.

27)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入表訓寺. 寺是山中名刹, 羅僧表訓始創之, 與長安正陽榆岾諸寺齊稱, 諸寺率不免災患, 而此寺獨完. 般若四聖十王等殿, 極其精麗, 海藏殿, 藏佛經諸板. 寮舍凡十餘所. 又駕石爲虹橋, 壓橋而起樓. 亦以山映名之, 而寬豁遜於長安之山映矣. 登樓瞻眺, 題名於樑上.”

는 뛰어나니, 참으로 이 산의 제일가는 승경이다.”²⁸⁾나 “鉢淵의 상류에 도달했다. 갈아놓은 옥처럼 반질반질한 흰 돌이鉢淵洞 전체에 늘어서 있고 물이 그 위를 흐르는데, 세차게 흘러 臥瀑이 되기도 하고 흩어져 맑게 흐르기도 하였다.潭이나 瀑은 비록 萬瀑洞에 미치지 못하지만, 너럭바위의 넓고 환히 빛나는 것은 배가 될 뿐만이 아니었다.”²⁹⁾와 같이 짧다. 그러나 그의 산수 품평이 이와 같이 제한적 형태를 보이는 것은 장황한 산수 품평을 경계했던 김창협³⁰⁾의 영향도 일정부분 있었으며, 그의 학자로서의 자각과 엄정성의 추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찍이 김창협은 산수에 대한 평가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하는 것 자체는 외부로 지향하는 병통이라고 인식한 바 있거니와,³⁰⁾ 이의현도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장황하게 꾸며서 識者들의 비웃음을 사는 태도를 극도로 경계하는 학자적 엄정성을 추구하고 있었다.³¹⁾ 따라서 평소 산수 유람을 즐겨하지 않아서 산수 체험이 적었던 이의현으로서의 산수 품평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³²⁾ 일반적인 산수 품평이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승경을 비교하기도 하

28)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樓極軒敞曠朗, 羣巒簇列, 若釘飯, 正面直對, 通見無礙. 盡萃於欄檻之前, 眼界之快爽, 倍勝於天逸, 真是山中第一勝也.”

29)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至鉢淵上流. 有白石潤滑如磨玉, 列鋪於一洞, 水流其上, 或走爲臥瀑, 或散爲清流. 潭瀑雖不及於萬瀑, 而磐石之平廣明皚則不翅倍之.”

30) 金昌協, 『農巖集』卷19, 「答道以」, “但山水之評, 似太張皇, 覺得意思暴露, 氣象淺薄. 此是道以從來病根, 而又發於此, 不可不察也. (中略) 大抵此等, 皆是向外之病, 所以切切奉告如此, 不知道以能堪此苦口否耳.” 안득용(2005), 「17세기 후반 ~ 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참조.

31)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人之登毗盧者, 皆眩轉恟愁, 茫如墜霧, 脚下亦不能辨, 徒憑僧輩之指示, 認爲遠眺, 輒以誇壯於人曰: 吾登毗盧頂, 見某地某山矣, 又豈不爲矮人之觀場而資識者之一哂哉.”

32) 그가 「楸池嶺」이란 시에서 추지령에서 바라본 물색을 “아침 일찍 가랑비 따라 행장을 꾸렸는데, 고개는 아득히 높고 길은 참으로 멀도다. 물색은 온통 내수점과 같아 보이고, 풍광은 다시 중앙절이 다 되었네. 맑은 시내 비

지만, 다른 곳의 승경과 작자가 유람하는 곳의 승경을 비교하는 방식³³⁾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文物과 地理에 대한 關心

이의현의 「유금강산기」가 서술 내용에 있어 다른 문인들의 금강산 유기와 구별되는 점은 문물과 지리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금강산에 있는 여러 사찰들을 유람하면서 그곳에 있던 문물과 지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역대 문인들의 금강산 유기가 대체로 문물제도나 지리에 대한 정보보다는 금강산의 경치를 묘사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차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강산이란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유람자들이 금강산의 승경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산수유기 작품 중에서 문물과 풍속, 지리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 주로 북방지역이나 궁벽하고 외진 산수를 창작 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누대에서 내려와 절에 들어가 藥師殿을 구경하였다. 전은 육각형인데 제도가 매우 기이하였다. 그 넓이는 다만 한 칸으로 가운데 석불을 안치하였으니, 바로 약사의 상이다.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문이 있으며 좌우의 네 벽에는 나한들의 여러 상이 그려져 있는데, 모두 매우 섬세하였다. 승려는 ‘吳道子가 그린 것’이라고 했는데, 믿을 수 없으나 화법이 기묘하여 색에서 광채가 나니 또한 평범한

단 바위는 새로운 모습 드러내고, 단풍잎 푸른 숲은 저녁에 단장한 모습 비취주네. 선산을 떠난 후 내심 그리워하였는데, 호분이 그래도 중량을 대신 할 만하구나.[早隨微雨整行裝, 厓嶺峒嶢路正長. 物色渾看同水岫, 風光仍復屬重陽. 清流錦石呈新態, 赤葉蒼林映晚粧. 一別仙山心戀戀, 虎賁猶可替中郎.(李宜顯, 『陶谷集』卷1, 「楸池嶺」)]”라고 읊으며 자신이 이미 경험한 內水岫에서의 풍광에 비견한 것[是嶺恰似內水岫]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3) 대표적으로 금강산의 碧霞潭과 화양동의 龍谷을 비교한 金昌協의 「華陽諸勝記」와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숨씨는 아니다. 각 화상의 위에는 붉은 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이름과 자가 쓰여 있다. 글자체가 또한 곱고 아름다웠는데, 누구의 글씨인지 알 수가 없다.³⁴⁾

위 글은 이의현이 正陽寺에 있던 藥師殿의 모습을 서술한 부분이다. 그는 약사전의 건축 양식에서부터 석불의 배치, 문의 위치, 벽에 그려져 있던 나한의 모습 등을 자세히 그리고 있으며, 심지어 나한상 위에 그려져 있는 붉은 색 동그라미나 글씨까지도 유심히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서술은 일반적인 산수유기가 산수의 형세와 위치를 묘사하는 데 치중하고, 사찰의 규모나 민중의 생활 등은 소략히 다루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비교적 사찰의 모습을 상세히 기술한 김창협도 “八角殿이란 곳은 제도가 매우 기이하고 사방의 벽에 모두 佛畫가 그려져 있는데, 채색이 상당히 벗겨졌는데도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精氣가 넘쳐 흘렀다. 세상에서는 吳道子の 그림이라고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러나 신라 이후의 그림은 아닐 것이다.”³⁵⁾란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의현의 이러한 문물에 대한 관심은 눈에 보이는 사찰의 모습을 단순히 묘사하는 수준을 넘어 각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기물을 일일이 찾아 기술하게 하였다. 그가 楡岾寺에 머물면서 고려 때 閔漬가 지은 『建寺本末』 이외에 소장하고 있던 다른 불교 서책과 法器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³⁶⁾ 문물에 대한 이러한 探究는 일반적인 유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당시 이의현이 유점

- 34)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下樓入寺, 見藥師殿, 殿用六角, 制極其瓌巧. 其廣只一間, 中安石佛, 卽所謂藥師之像. 東西各有門, 左右四壁, 畫羅漢諸像, 而施彩皆墳, 起亞而礙指. 僧云: 吳道子筆, 而未可信. 然其畫法奇妙, 生色燁然, 亦非凡手也. 各像之上, 紅圈而書名字, 字體亦妍媚, 不知誰人筆也.”
- 35) 金昌協, 『農巖集』卷23, 「東遊記」, “觀所謂八角殿, 規制甚奇, 四壁皆佛畫, 丹彩稍剝, 而精氣勃勃如生. 世傳吳道子畫, 非是. 然亦非新羅以後筆也.”
- 36)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早起, 令僧輩出示寺中古蹟, 僧輩以高麗閔漬所記建寺本末冊子進, 披覽訖. 又問曰 此寺舊聞多有貝葉書及他書法器用什物之可賞玩者, 盍一示之. 僧輩初頗諱秘, 後乃出示.”

사의 유물을 보고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류	특기 사항	비고
觀音親書와 범어로 된 불교서적	盛以瑠花金匣, 所謂貝葉. 是樹葉而出自西域者也. 其形如樺皮而無斑文, 其色淡黃如土染.	
指空이 쓴 佛經 1첩	靑質銀字, 下畫佛像, 畫下書梵字, 同盛於金匣.	
푸른 색 琉璃大樑 3개	古物也. 同盛於紅櫃.	
仁穆王后가 유포 시에 쓴 彌陀經	幽閉西宮時所書也. 凡六帖三套, 皆以綠錦爲匣. 銀字經下每帖, 各書祝願之辭.	축원의 내용도 기술되어 있음.
休靜의 書翰과 圖圓形題佛語	字法頗不俗.	

이의현은 이밖에도 「유금강산기」에서 자신이 가본 정자와 누대에 선대 시인 묵객들의 글씨와 題詩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사항을 가능한 빠짐없이 기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³⁷⁾ 지명의 유래나 관련 설화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³⁸⁾ 특히 그는 자신이 유람한 지역이 행정 구역 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玉洞驛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平康 땅이다.”, “이것을 건너면 金化의 지역이다.”, “고개의 동쪽은 곧 金城의 지역이다.” 등과 같이 반드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의 「유금강산기」는 문학 작품인 산수유기에 속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은 자연지리

37)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是亭楊蓬萊始棚, 韓石峰扁額, 實兼山海雄觀, 宏遠疎快, 爲嶺東樓閣之冠. 中間不修且壞, 李侯迪吉爲守, 重新之, 尤翁書額, 谷雲亦以八分書額壁, 有簡易·澤堂·白洲·尤翁諸詩板.”

38)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宜顯, 『陶谷集』卷25, 「遊金剛山記」, “舟渡西津江, 江上有德津堂. 府吏言壬辰之亂, 官軍爲賊所迫, 至此津, 時爲六月而氷合凝堅, 官軍旣渡, 賊騎隨之, 半渡而氷解, 賊騎盡死. 以此名以德津, 官設江神位版, 歲修祀儀云. 按此津載於輿地勝覽, 其謂壬辰者誤矣.”

와 지역지리, 인문지리의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지리서로서의 기능적 요소들도 상당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⁹⁾ 그가 천일대에서 바라본 내금강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鄭澈의 그림과 대비시켜보면 지리서로서의 기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구름 낀 하늘에 높이 솟아 동북쪽으로 웅장하게 서려 있으면서 삼가고 존엄한 것은 毘盧峰이다. 이는 실로 내외 금강산의 주봉으로 눈처럼 흰 것이 우뚝 솟아 玉筍을 뽑은 듯하였다. 비로봉의 남쪽에 가로로 걸려 있는 것은 衆香城이다. 白雲臺는 그 아래에 있고 雁門峰은 그 동쪽에 있다. 안문의 가장 동쪽에서 매우 뾰족하고 흰 모양으로 외롭게 하늘로 솟아 비로봉과 높이를 닮는 것은 望高臺이다. 망고대의 동쪽에 높이 솟아 매우 가파르면서 기이한 것은 穴望峰이다. 봉우리의 정상에 웅기 입구 같은 구멍이 있어서 저 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승려가 '摩訶衍에 도달하면 매우 바라보기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향의 아래에서 갑자기 우뚝 솟아 하나는 높게 하나는 낮게 서 있는 것은 大小 香爐峰이다. 향로봉의 아래, 천일대의 북쪽에 기이한 바위들이 대를 쌓은 모양으로 웅기 하여 바라볼 수는 있어도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 金剛臺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靑鶴臺라고 하는데, 옛날에 仙鶴) 그 정상에 동지를 틀었다고 한다. 비로봉의 북쪽에 한 봉우리가 송곳 처처럼 날카롭게 솟아 있는 것은 圓通峰이다. 멀리 가장 남쪽을 바라보니 크고 작은 두 봉우리가 구름 밖에 솟아 나왔는데, 전체가 모두 희었다. 바로 白馬峰과 國望峰이다. 그 밖에 羅漢峰은 망고와 혈망의 사이에 있고 頓道峰은 혈망봉의 아래 기슭에 있다. 上雲峰은 혈망의 동쪽에 있고 獅子峰은 금강대의 북쪽에 있다. 그 높이가 비슷한 것이 서로 마주하고 서 있는데, 사자의 모습 같아서 사자봉이라 이름 했다. 혈망봉

39) 그의 이러한 면모는 그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남긴 시에서도 확인된다. 대표적인 예로 「移城」이란 작품을 보면, 그는 “민간에서 전하기를 ‘속인이 이곳을 지나면 반드시 바람이 불고 번개가 쳐서 쫓아내므로 성을 옮겨서 막았다. 이에 이름을 이성(移城)이라 했다.’ 한다.[諺傳俗人若過此, 必風雷以逐之, 移其城以防之故名.]”라고 서두에 주석을 한 후, “어지러운 바위 멀리 잔도(棧道)에 통해 있고, 사자봉은 가까이서 사람에게 다가올 듯하네. 이 성이란 이름 예로부터 전해와, 괴이한 이야기 천 년 동안 미혹하게 하네. 황홀한 바람과 번개 기이하고, 우뚝한 산봉우리 새로워라. 용담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고는, 지팡이 짚고 잔걸음으로 걸어가네.[亂石遙通棧, 獅峰近趁人. 移城傳古號, 怪說惑千春. 恍惚風雷異, 嵯峨岳岫新. 龍潭知在望, 策杖步頻頻(李宜顯, 『陶谷集』卷1, 「移城」)]”라고 읊으며, 지명의 유래에 비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으로 부터 아래에 내려오면서 다섯 봉우리가 연달아 일어서 있는 것은 五賢峰이다.



[정선의 '金剛山內總圖']

그러면 왜 이의현은 자신의 산수유기 속에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기록하였던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의현이란 인물이 지니고 있던 기본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어느 사안이건 간에 관련 정보를 가능한 모두 수집하여 기록하는데 벼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모든 귀와 눈과 마음에 걸리는 것이면 으레 기록하였으니 진실로 자질구레하여 말할 것은 못되나 또한 한두 가지 취할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아니다.”⁴⁰⁾라고 한 언급도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거니와, 실제로 그는 「운양만록」이나 「도협총설」과 같은 필기류 저작에서 조선조 문형의 계보와 우리나라의 성씨 298개를 모아 기록하는 등 다양하고 세세한 정보들까지도 기록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을 자세히 정리한 「自表」, 「自誌」, 「紀年錄」 등을 남긴 바 있으며, 연행록을 서술하면서도 구입한 서책의 목록과 노정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⁴¹⁾ 그가 남긴

40) 李宜顯, 『陶谷集』卷28, 「陶峽叢說·後識」, “凡係耳目心思, 輒記之, 固猥瑣無足言, 而亦不無一二可取.”

이러한 기록들은 대체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列子』 8편은 그 정밀한 말과 오묘한 뜻이 『南華經』과 백중이다. 『남화경』에 실려 있는 것이 간간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데 「黃帝」 한 편에 더욱 많으니, 아마도 후인들이 건강부회하여 책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남화경』의 「說劍」·「盜跖」 등의 편은 이미 후세 사람들의 의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 『열자』에 기재된 것이 『남화경』에 수록되어 후인의 追撰이 되는 것이 「설검」, 「도척」 같은 편인지 알 수 없다.”⁴²⁾와 같이 유가 경전 및 諸子書, 史書 등을 개관한 것도 그러하거나, “명나라 문집으로 세상에 간행된 것은 한우충동으로 많아서 다 논할 수가 없으나 대략 네 파가 있으니, 우선 나의 집에 보관된 것을 가지고 말해보겠다. 方孝孺, 劉基, 宋濂은 의리와 학술로 文詞를 표현한 자들이니 이들이 한 파가 된다. 방효유는 더욱 성대하고 드넓어서 명나라 삼백년의 문장이 전혀 여여기에 미칠만한 자가 없고 송렴은 그 아류이고 유기는 또 송렴에 짝이 될 만하다. 왕수인과 진현장은 異學으로 문장을 지었는데, 왕수인의 글은 더욱 상쾌하니 新學은 마땅히 배척해야 하나 문장에 있어서는 취할 만하다. 李贄의 괴기함에 이르러서는 왕수인으로 말미암아 위로 올라가 더욱 펼친 자이니 이 세 대가의 문집이 마땅히 한 파가 된다.”⁴³⁾와 같이 당송시대 문장가와 명청대 문장가들의 특

41) 자세한 사항은 박은정(2012),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곡 이의 현-기록벽(記錄癖)과 기록 정신을 중심으로-」, 『온지논총』30, 온지학회; 김영진(1999),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참조.

42) 李宜顯, 『陶谷集』卷28, 「陶峽叢說」, “列子八篇, 其精言妙指, 可與南華爲伯仲, 間有載於南華書者攙入其中, 黃帝一篇尤多, 無乃後人之傳會成書耶. 抑南華說劍盜跖等篇, 既多後人之疑, 其載列子書而入其中者, 爲後人之追撰, 如說劍盜跖等篇耶. 未可知也.”

43) 李宜顯, 『陶谷集』卷28, 「陶峽叢說」, “明文集行世者, 幾乎充棟汗牛, 不可殫論. 而大約有四派. 姑就余家藏而言之, 方遜志劉誠意宋潛溪, 以義理學術, 發爲文詞者也. 此爲一派. 遜志尤滂沛浩瀚, 有明三百年文章, 絕無及此者, 潛溪其亞, 而誠意又潛溪之匹也. 陽明白沙, 以異學爲文, 而陽明之文尤爽, 新學則當

징과 주요 축적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등의 행위는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렇듯 문장에 다양한 정보를 남기려 했던 것은 “詩는性情을 말하는 것이고 文은 道術을 밝히고 事變을 기록하는 것이라서 모두 세교에 보탬 되는 바가 있으니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⁴⁴⁾와 “성인의 도는 육경에 있으니 진실로 배우는 자들이 모두 이에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 비록 말단인 詞章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것 밖에서는 달리 구할 데가 없다. 문에 이치가 없다면 문이라고 할 수 없다.”⁴⁵⁾ 등과 같이 그가 문학을 효용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의현이 「유금강산기」에서 이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기록과 수집·정리의 습성과 문학에 대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의현의 「유금강산기」는 산수 자연의 풍광을 묘사하고 작가의 심미적 정취를 기술한 ‘문인의 유기’이면서 금강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물과 지리학적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학자의 유기’인 셈이다.⁴⁶⁾

IV. 結論

본고는 이의현의 문학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기 위해, 그의 금강산 유기인 「유금강산기」를 분석해 보았다. 검토 결과 이의현의 「유금강산기」

斥, 而文則可取. 以至李卓吾之詭怪, 由陽明而騰上益肆者也, 此三集當爲一派.”

44) 李宜顯, 『陶谷集』卷28, 「陶峽叢說」, “詩以道性情, 文以明道術, 記事變, 皆有所補於世教, 不可以徒作也.”

45) 李宜顯, 『陶谷集』卷27, 「雲陽漫錄」, “聖人之道, 具在六經, 固學者所共刳心, 而雖欲爲詞章之末, 外此亦不可他求. 蓋文而無理, 不可謂之文.”

46) 중국의 王立群은 『中國古代山水遊記研究』란 책에서 역대의 산수유기를 “詩人之遊”와 “學者之遊”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시인지유”는 산수 자연의 풍광 묘사와 작가의 심미 정취를 주로 기술하며, “학자지유”는 지리학적 정보를 주로 기술한다고 밝힌 바 있다. 王立群(1996), 『中國古代山水遊記研究』, 河南大學出版社. 참조.

는 그가 1709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총 12일간 금강산의 승경들을 두루 유람하고 돌아와 쓴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조선 후기 산수유기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산수유기의 典型을 준수하고 있었다. 「유금강산기」의 서술 방식의 특징으로는 조선 후기 산수유기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여행 경로를 따라가며 금강산의 실경을 가감 없이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산수에 대한 품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유금강산기」는 다른 금강산 유기에 비해 문물과 지리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의현 자신의 기록과 수집·정리의 습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가 평소 문장은 세교에 효용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道를 담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문학론을 지니고 있었던 바, 문학적 색채가 다분한 산수유기 창작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문물과 지리 등 세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세히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의현의 「유금강산기」는 산수 자연의 풍광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다양한 문물과 지리적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⁴⁷⁾

47) 끝으로 이의현의 「유금강산기」를 문장론의 관점에서 약간의 첨언을 붙이자면, 「유금강산기」는 작가 자신이 추구했던 ‘韓歐正脈’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전체가 금강산의 사실적 모습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비교적 평이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군더더기라고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서술이 전무하다. 문장의 호흡도 “行過數百步，仰見仄壁穹然，石劍高攢，馬行其下，突兀趁人，似欲墜下，令人慄然。踰一小峴，四山廻擁，樹林翳鬱，峽束岡盤，氣象雄奧。”와 같이 대체로 정련되어 있으며, 궁벽한 고사를 사용한 부분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유금강산기」를 읽는 독자라면 누구나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글쓰기가 ‘辭達’의 가치를 중시한 ‘한구정맥’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參考 文獻>

金昌協, 『農巖集』

魚有鳳, 『杞園集』

李宜顯, 『陶谷集』

고연희(2001),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기정순(1994),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研究」, 단국대 석사논문

_____ (1999),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小考」, 『한문학논집』17, 근역한문학회

김미순(2012), 「<庚子燕行雜識>를 통해 본 李宜顯의 淸 文物 認識」, 『역사교육논집』48, 역사교육학회

김영진(1999), 「조선후기 중국 사행과 서책 문화」, 『연행의 사회사』, 경기문화재단

김우동(1997), 「陶谷 李宜顯의 文學觀과 詩世界」, 경북대 석사논문

민복기(2009), 「陶谷 李宜顯 散文批評의 淵源에 대한 研究」, 부산대 박사논문

박은정(1998),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研究」, 한양대 석사논문

_____ (2012), 「조선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곡 이의현 記錄癖과 기록 정신을 중심으로-」, 『온지논총』30, 온지학회

사경화(2011), 「도곡 이의현의 간엄 추구와 문학적 구현:碑誌類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논문

안득용(2005), 「17세기 후반 ~ 18세기 초반 山水遊記 研究-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王立群(1996), 『中國古代山水遊記研究』, 河南大學出版社

윤지훈(2005), 「삼교 안석경의 금강산 유기」, 『한문학보』12, 우리한문학회

이연희(1989), 「陶谷 李宜顯 研究」, 숙명여대 석사논문

장유승(2009), 「陶谷 李宜顯의 한시 비평론」, 『한국한시작가연구』13, 한국한시학회

정민(2001),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경향」, 『18세기연구』4, 한국18세기학회

- 정순희(2001), 「조선중기 古文論 해석의 문제점-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47, 한국언어문학회
- _____ (2002),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과 文學」, 전북대 박사논문
- _____ (2004), 「古文論과 碑誌類의 상관성-陶谷 李宜顯의 碑誌類를 중심으로-」, 『語文研究』46, 어문연구학회
- 정옥자(1984), 「陶谷 李宜顯과 그의 文學觀」, 『韓國史論』11, 서울대 국사학과
- 정우봉(2012), 「조선후기 遊記의 글쓰기 및 향유 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 연구』49, 한국한문학회

Abstract

*A Study of "YuGeumgangsangi" By Dogok Leeuihyeon / Yoon Ji Hun**

There is "YuGeumgangsangi", a Geumgangsang yugi by Leeuihyeon, which this study is on. This found that his work "YuGeumgangsangi", a kind of travel essay about during 12days from Sep. 1-12, 1709 when he traveled throughout Geumgangsang, was written after the trip. It followed a traditional style of Sansu Yugi, adopting certain parts from the style in the late Choseon.

He described the real view along the journey by the route as it was and tried to comment on the landscape partly. Also, his work have more records of geography and culture of Geumgangsang than other ones, which shows that he used to record, collect and arrange some materials and that he emphasized literature involved in the effective value on educational campaign and with dào (道). In a word, "YuGeumgangsangi" by Leeuihyeon has various humanistic informations and the real description of nature.

【Key words】 Leeuihyeon, "YuGeumgangsangi", the real description of nature, comment on the landscape, culture, geography, the habit of recording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earcher / singlesw@kice.re.kr